

광주 코로나 대유행 ... 거리두기 2단계 선제 대응해야



약 처방전 행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1등 병실 전체의 코호트 격리와 응급실, 외래 등 전체 진료가 중단된 광주 동구 서석동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7일 오후 약 처방전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분관 앞까지 길게 줄지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대병원 안일한 대응에 급속 확산, 동일집단격리까지 뒤늦게 1.5단계로 ... 전남 순천·광양·여수에서도 확진자 속출

광주시가 전남대학교 병원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이번 감염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상황을 지켜본 뒤 2단계 격상까지 고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국가 지정 감염병 치료 병상이 있는 지역 중주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에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등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병원측의 부실하고 안일한 방역체계를 비난하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의료진 등 직원만 400명이 넘는 광주병원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 수백명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았던 여러 초등학교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덕분에 단 한건의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는 등 전남대병원과는 비교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선 전남대학교 병원발 감염 초기부터 지역사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는데도,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1.5단계 격상을 늦춘 광주시의 소극적인 방역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을 재확

산 이후 정부에서 단계 격상이 이뤄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시·도 중에서는 첫 단계 격상이다. 회의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들어 1.5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선 지난 16일 확진자 18명이 발생해 9월 8일 이후 69일 만에 일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날도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환자와 전남대병원 관련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580명으로 늘었다.

지난 7일 이후 전남대병원 관련 25명, 상무동소주방 관련 14명이 나왔으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찰서, 은행, 교회, 성당 등 일상과 밀접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시장은 "1.5단계로도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어려우면 바로 2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2단계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시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하루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1월 7일 재확산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데 이어, 17일 오후 6시 현재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최근 이들 5명이 광양과 목포에서 발생했다. 이날까지 코로나19 전남 누적 확진자는 272명이며 지역감염 224명, 해외유입 48명이다. 지난 7일 재확산 이후에만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순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으며, 13일과 14일에는 광양과 여수지역을 1.5단계로 격상조치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하루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1월 7일 재확산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데 이어, 17일 오후 6시 현재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최근 이들 5명이 광양과 목포에서 발생했다. 이날까지 코로나19 전남 누적 확진자는 272명이며 지역감염 224명, 해외유입 48명이다. 지난 7일 재확산 이후에만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순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으며, 13일과 14일에는 광양과 여수지역을 1.5단계로 격상조치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군공항 이전 갈등 ... 광주 시민단체·전남도 성명전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의 상생협력을 비난하자 전남도가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사·도민 간 인식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의 상생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대책 없이 민간 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8개 연합단체와 315개 개별단체가 모인 광주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는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면 군공항도 함께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도민들이 공감할 협력과 노

력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력과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기획단(TF)을 구성해 실무회의 등 10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대로 된 범정부적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면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 주민설명회와 설명자료 반송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설명회 개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국방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설명회 대신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며 4개 군이 이를 반송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황룡강 주변 대규모 아파트 도시공간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

뉴스초점 - 광주시, 책임 없는 난개발

주택종합계획 무용지물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

광주시가 최근 한류문화콘텐츠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목으로 황룡강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해 9월 개발제한 허가지역으로 묶여있던 황룡강 장곡읍지 인근 139만5553㎡에 이르는 부지를 21개 택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9개구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부지 2개가 전락산업시설, 3개가 상업시설, 1개가 유통용지, 5개가 학교부지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없다며 그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건설업체들에게 팔아넘긴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유사하게 아파트 개발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일부 수익으로 한류문화콘텐츠 관련 시설을 건립·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광주 곳곳에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승인을 남발한 광주시가 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도심 외곽인 황룡강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관련 실국 협의, 광주시의회 보고 등도 없는데도 도시를 강제수용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 등이 프로젝트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게 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도 불투명하다. 광주시는 '주민 민원

해결'이라는 공색한 해명을 내렸지만, 정작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 없이 내쫓기게 됐다. 평등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입주할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투성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아파트의 공급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효용성보다는 폐해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까지 '특혜' 변경해 주며 건설업체들에게 신규 아파트만 짓게 하는 것은 도시공간에서의 사익 추구 조장, 도시 경관 훼손, 철거 및 재건축 등 미래세대 부담 가중,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시장 교란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사업을 무더기로 승인해준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단체장은 아파트 개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일부는 약용하는 것도 '아파트 도시 광주'를 만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관련기사 6면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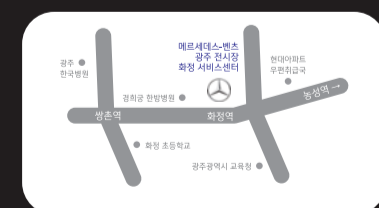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소공연 운영 NAVER 영남 문화대축전
온라인 공연, 광주일보, 매일신문사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양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양동)
M8 인증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 516(수영동)
호남 서비스센터 (062)945-2700 광주광역시 남구 죽전동 602(남구 죽전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5-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 520(4-영동)
정부 표준 연비 및 평균
G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60kg, 자동차연비/ℓ/100km: 도시/고속도로/합계 10.5/6.5/7.5, (도심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GLB 22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60kg, 자동차연비/ℓ/100km: 도시/고속도로/합계 10.3/6.5/7.5, (도심연비: 10.3, 고속도로연비: 13.2),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50
GLB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20kg, 자동차연비/ℓ/100km: 도시/고속도로/합계 10.5/6.5/7.5, (도심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기 배출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